

 금융위원회		<div>보도해명</div>				
 금융감독원						
보도		배포 후 즉시		배포	2020.7.8	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박 민 우(02-2100-2950)			담 당 자	윤 현 철 사무관 (02-2100-2951)	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		노 영 후 팀 장 (02-3145-8050)	

**제 목 :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및 정상화 방안의  
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.  
[아시아경제 7.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**

## 1. 기사내용

- ☐ 아시아경제는 7.8일 「‘코로나 대출’ 만기 추가 연장키로...금융당국·시중은행 오늘 간담회」 제목의 기사에서
- ① “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.”
- ② 7.8일 오후 관계기관 및 주요 은행과 “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‘코로나 대출’ 추가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다.”고 보도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\*들의 기한연장 여부 및 정상화 방안을 검토중이나
- \*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및 은행권·증권사 등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
- 연장여부 및 정상화 여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☐ 또한 7.8일 예정된 간담회는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의 현황 및 기업 자금사정 동향을 실무적으로 점검하는 회의임을 알려드립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자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--	---	---	---	-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